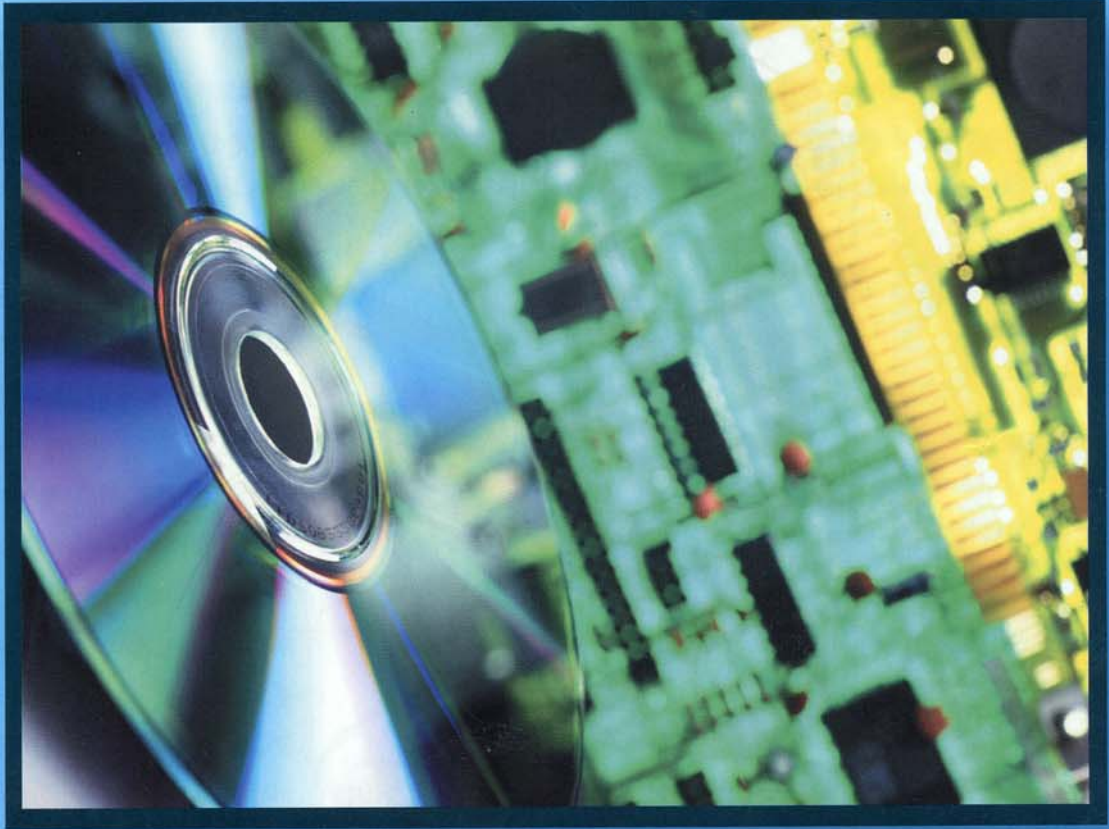


산업리뷰

2003년 5월 / 제14권 제5호 (통권 145호)



2003. 5

CONTENTS

- 2 • 산학칼럼 /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제 100일 앞으로 7 • 이 달의 쟁점 / 외국인 고용허가제
- 12 • 경영 · 기술정보 / 모바일 상거래 현황과 모바일 경영 17 • 제156차 월례세미나 /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 20 • 특별리포트 / 미국과 미국속의 한국인 22 • 대덕단상 / 양성평등의 실현과 그 당위성 27 • 연구원소식 27 • 회원동정
-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제 100일 앞으로

윤종호 |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방송보도부 공보팀장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이자 미래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인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 7개 도시(안동, 김천, 구미, 경산, 영천, 경주, 예천)에서 개최될 이번 대회는 지하철 참사로 인한 대구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침체된 대구의 분위기를 일신하여 역동적인 대구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회 개요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대학(University)과 올림픽(Olympiad)의 합성어로 세계대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의미한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어떠한 국가나 개인에 대하여 인종·종교·정치적인 이유로의 차별과 지나친 상업주의를 배제하며,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며, 1959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하계·동계로 구분하여 2년마다 홀수 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하계 대회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10개(육상, 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펜싱, 체조, 수영,

다이빙, 수구)와 선택 종목 3개(태권도, 유도, 양궁) 등 13개 종목이며 17세부터 28세까지 아마추어 대학선수면 참가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무주·전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계대회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1959년 제1회 대회에 육상 1개 종목에 선수 5명과 임원 1명이 참가한 이래 제2·3·4·8회를 제외하고 계속 참가온 우리 나라는, 67년 대회의 박신자 선수 등 여자 농구팀, 79년 유도의 하형주, 91년 마라톤의 황영조, 99년 테니스의 이형택 등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 대회 비전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이념은 'Dream for Unity' 즉, '하나가 되는 꿈'이다. 이는 동북아의 유서 깊은 교육·문화의 도시이자 앞서가는 섬유·패션도시인 대구에서 열리며, 자연의 섭리와 첨단문명의 조화속에서 모든 경계와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인류의 염원을 담은 녹색 문화제전을 뜻한다. 대구유니버시아드의 대회방향은 Daegu의 영문 철자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Dream	꿈을 갖자	인류의 큰 꿈을 가꾸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Advance	나아가자	진보된 기술을 활용한 첨단대회
Equalize	차이를 넘자	경계와 차이를 뛰어넘는 문화축제
Green	푸르게 하자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는 환경대회
Unity	하나가 되자	이해와 관용어린 대학 축제



엠블렘은 FISU의 상징물인 U자와五星을 기본으로 하고 대회 주제인 '하나가 되는 꿈'과 5가지 대회 방향을 상징하며, 오색띠는 대구의 섬유패션을 상징하고, 녹색띠가 넓은 것은 환경도시를 강조한 것으로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과 희망찬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마스코트(애칭 Dreami)는 지구촌 대학생들의 축제인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이미지를 무지개 사이버형 캐릭터로 구현한 것으로 무지개는 섬유패션산업과 환경친화

및 경계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꿈을 표현한 것이며 사이버는 젊은이의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 대회 준비 상황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역대 유니버시아드 대회 중 가장 기록적이며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국제대회보다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장을 하나도 신설하지 않고

65개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인력, 물자,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기장이 생활주변과 근접하여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대학이 함께 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13개 종목 183개의 세부 종목이 펼쳐질 경기장 시설(65개소)의 개·보수, 선수촌 건립 및 국제미디어센터(UMC)설치 등 대회운영을 위한 제반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장과 연습장의 개·보수 공사는 5월말까지 완료되어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선수촌(북구 동서변 택지지구 아파트 24개동 1,935세대,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역시 5월말에 완공되어 안락하고 편리한 숙박시설과 쾌적한 환경 및 여가 활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시설과 기호에 맞는 양질의 급식 메뉴가 제공되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대회종합정보시스템(경기운영 프로그램 코딩, 인터넷 정보시스템, 대회지원관리시

스템, 패밀리정보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IT대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인력(자원봉사자 등)과 물자의 수급, 선수·임원·보도진의 수송, 의무 지원 등 모든 분야의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였던 북경대회(164개국)를 능가하여 당초 목표였던 170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와 SARS 등을 우려하여 참가 의사를 철회한 나라는 1개국도 없다는 점에서 조직위는 대회의 성공을 장담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란,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분쟁국들은 물론 북한도 이미 수 차례 참가의사를 구두로 밝힌 바 있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인류화합과 평화 및 Dream for Unity를 구현하는 대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있다. 참가 인원수도 현재까지 7,618명의 참가가 확정적이어서 이미 북경 대회의 6,757명을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 등 참가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가 많아 참가 인원수



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대구의 문화역량을 한껏 표출하여 성공적인 대회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개·폐회식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4,701명의 출연자를 확보했으며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수효과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개회식은 녹색 환경도시, 첨단 IT기술, 패션문화산업과 인류가 하나되는 꿈을 표현하는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폐회식은 우정과 이별의 아쉬움을 주제로 하는 공연으로 꾸며질 것이다.

대회기간중 주경기장인 대구월드컵 경기장을 밝혀줄 성화는 8월 10일 한국 最古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이태리 토리노에서 채화된다. 성균관에서 채화된 성화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U자 형태로 봉송하여 토리노에서 채화된 성화와 '새천년 영원의 불'이 안치되고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포항 호미곶에서 합화되어 개막행사시 최종 주자에 의해 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토리노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것은 제 1회 대회의 개최지이고 역대 대회가 토리노에서 채화된 관례와 FISU의 권유에 의한 것이며, 성균관에서 채화되는 것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600여 년 동안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종합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개최 도시와 개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제전이기도 하다. 대회기간을 전후하여 공식적인 개·폐회식, 성화봉송행사 외에도 20여 종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것이다. 개막 전날인 8월 20일에는 대회를 경축하는 전야제 행사가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며, 대회기간 중에는 '대구아트엑스포', '한국고대의 장식문양특별전', 'U대회기념 국제 서예전', '깃발축제', '세계대학 민속·에어로빅스 축제', 'U대회기념 대구국제패션축



제' 등 다양한 전시 및 축제행사가 열린다. 또한 국립국악원(한국의 춤과 소리), 국립발레단(백조의 호수), 국립창극단(마당극 홍보전), 국립관현악단(우리가락 우리노래), 서울 예술단(로미오와 줄리엣) 등 수준 높은 공연단의 무대가 8월에 집중적으로 펼쳐져 '문화 U대회'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주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한국문화와 전통을 함축하는 전시, 공연, 체험의 장이 어우러지는 한국문화 체험관을 운영하여 대회기간동안 대구를 방문할 내·외국인에게 대구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 대회 효과

국제스포츠 이벤트는 참가선수와 관객에게 스포츠로서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개최국에 정치·사회·문화·경제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과거 1964년 동경 올림픽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 올림픽은 신흥 공업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2 월드컵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IMF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국민적 자긍심을 되찾




게 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대형 국제스포츠 축제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계기로 대구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미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세계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대구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얻게 되는 무형의 효과는 유형의 효과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가 정치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과거 핑퐁 외교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북핵 문제 등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참사로 슬픔에 잠긴 대구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회복하여 다시 뛰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이다. 지방의 세계화에 따라 세계는 국가간 경쟁구도에서 이제는 국가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이벤트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여타 지역은 물론 세계의 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으며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대구의 이미지를 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효수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허가받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적법한 보호와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19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근로자의 국내 기업에서의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노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수립되면서 199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즉 1980년대 말부터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취업이 증가하자 정부는 실질적으로 3D업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은 1994년에 제1차로 21개 제조업에 2만명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2001년 12월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부

터 85,500명으로 증원되었다. 그러나 2003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가운데 77.8%에 해당하는 약 28만 8천명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법취업자의 70%가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여행자 신분 등으로 방문한 불법 체류자들이지만 20%에 해당하는 5만 8천명은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자들이다. 이것은 산업연수생의 60%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불법취업자의 증가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는 2000년 4월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약간 보완하여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처음 2년간 연수를 한 후 1년간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2년부터 연수 1년에 취업 2년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노동단체 등에서 산업연수생제도가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그 동안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켜 왔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래서 노동부는 1995년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6년에 관계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수준의 6배에서 많게는 14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 시장에 대한 개도국의 만성적 초과 공급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만성적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한 불법취업자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되어 고용허가로 들어온 노동력이 허가기간에 불법취업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불법취업에 따른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회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고, 1997년에 제차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동부가 2000년부터 다시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의 집행업무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 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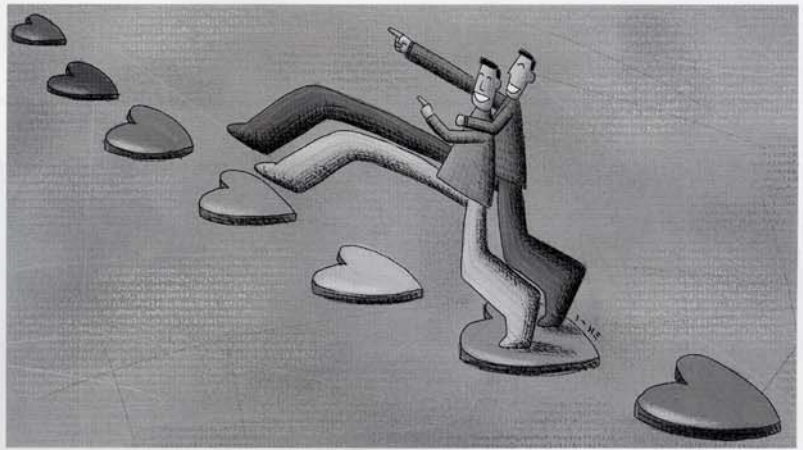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첫째 연수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시킨 산업연수생을 연수는 시키지 않고 실제 근로를 시킴으로써 입국 목적과 상이하고, 둘째 외국인 관리 체계에 투명성이 부족하여 송출비리 등이 빈발하며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적격자 선발이 곤란하고, 셋째 불법취업자를 양산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첫째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송출비리는 산업연수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허가제도하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둘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급여가 증가하고 연월차, 퇴직금, 상여금, 고용분담금 등을 감안할 경우 인건비가 최소 30% 정도 증가할 것이고, 셋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을 결

성하여 이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넷째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높여 2세 교육 주택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불안과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다섯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는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연수취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어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도입되는 노동력 특성별로 상이하게 수립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식 기술의 수입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단순기능 인력의 수입은 3D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제외하면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외국 인력 도입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기능 인력의 도입은 첫째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고, 둘째 산업구조조정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인권문제 등을 야기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 넷째 단순기능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장기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의 기본 원칙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불법취업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논쟁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산업연수생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취업자의 약 70%는 여행비자 등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지만, 산업연수생의 60%가 불법취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연수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산업연수생들이 이처럼 대거 불법취업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산업연수생들이 불법취업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합법에서 불법취업자로 전환한 자 가운데 60.8%가 임금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37.5%가 근로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노동이동의 결과로 임금수준이 더 낮아졌다고 답한 비중은 1.7%에 불과하였고, 근로조건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자의 비중은 8.9%에 불과하였다. 실제적으로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연수생은 82만 3천원인데 불법취업자는 85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연수생은 월평균 276시간

인데 불법취업자는 240시간이었다. 근로시간당 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연수생의 임금수준은 불법취업자의 83.2%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원래 선진국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단순기능 인력의 직업수행 능력을 개발 향상시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산업연수인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산업연수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연수생들은 연수보다 단기간에 보다 높은 소득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연수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연수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불법취업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수준의 6배에서 많게는 14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개도국의 만성적 초과공급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만성적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한 불법취업자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되어 고용허가로 들



어은 노동력이 허가기간에 불법취업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불법취업에 따른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권침해 사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문제는 개인의 인권이 인종, 민족, 국적을 초월하여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해외 시장개척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수제도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제기되는 인권문제보다 실제로 심각한 것은 산업재해, 체불, 구타 등인데 이러한 인권유린은 합법적 관리가 어려운 불법취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급여가 증가하고 연월차, 퇴직금, 상여금, 고용부담금 등을 감안할 경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하여 인건비가 최소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숙박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외국인 남자 근로자는 내국인의 78.7%이고, 여자는 87.9%의 수준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76.4%에 머무르고 있다. 임금, 숙박비,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력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내국인 고용비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고용허가제에 관계없이 이미 외국인의 고용비용이 내국인에 못지않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연월차, 퇴직금, 상여금 등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숙박비 및 식사비용 부담의 무면제로 인한 비용 감소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기업이 인력난 해결보다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내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내국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보완적 차원의 고용이 아니라 내국인 인력을 값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가 형성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는 인력 송출비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시장원리에 반하여 제도에 의하여 특정기업에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을 보장하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합리적이고 적기에 맞는 산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노동3권 보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노동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노동허가제에

비하여 노동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운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에서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노총 등이 조직 확대 전략 차원에서 산하에 외국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장기 정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문제는 연수취업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고용허가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3년 내지 4년 미만의 단기계약만을 허용하고 귀국보충금 사전예치제 등을 도입하는 등 계약기간 만료 후 귀국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취업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취업자는 물론 알선책 및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모두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불법취업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처럼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부에서 연수취업제도의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일정기간 두 제도를 병존시키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하여 계약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없어 고용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상거래 현황과 모바일 경영



김은수 | 경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발전 현황 및 전망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01년 119조원에서 2002년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자상거래율이 12.7%에 이르렀다는 보도(산업자원부, 2003)는 지금처럼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이라크 전쟁과 세계적 테러,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괴질 발생 등의 세계적 현상들이 전통적인 상거래의 활성화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시장에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모든 기업들이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나아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도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경쟁 우위의 창출에 실패할 뿐더러 기업의 미래 경영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해 주는 시장의 메시지인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종별 비례추출을 통해 대기업 272개사와 5인 이상 중소기업 1,321개사 등 전체 1,593개사를 대상으로 e-Biz 현황을 조사한 결과(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23.5%가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10.4%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4.7%가 지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RP 시스템의 경우 대기업의 42.3%와 중소기업의 19.7%가 도입하였다. ERP 시스템의 모듈 중에는 87.4%가 회계재무 시스템, 63.1%가 인사급여 시스템 등 주로 Back-Office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으나, 원가와 손익 계획 및 통제를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과 기업 수익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영업과 생산 현장관리 등의 Front-Office에 대한 정보화 도입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다면적으로 치열해질수록 영업과 마케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활동 등 Front-End 부문의 경영 활동들에 대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증대되며,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고객 가치의 극대화와 만족스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장지향적 정보화를 통해 실시간의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1990년대 초반부터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합리적 효율화를 위해 이미 막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해 ERP 시스템의

〈기술유형에 따른 기업의 현장지향적 정보화 유형〉

구 분	e-Biz 기술 지원	M-Biz 기술 지원
시장 현장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FA (Sales Force Automation)
생산 및 서비스 현장	SCM (Supply Chain Management)	FFA (Field Forces Automation)

추진과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생산정보화(POP, MES), 고객관계 및 공급망 관리(CRM, SCM) 등 ERP 시스템의 도입과 확장 부문을 지속적인 지원 영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미 기업 내에 ERP 시스템과 같은 정보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업의 경우는 이들과 통합할 수 있는 CRM, SCM 등 지식 확장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POP/MES 및 SFA, FFA 등 현장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술구조 속에서 현재의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방적 표준화를 고려한 무선 인터넷 통신과 같은 세계적 산업 표준에 따라 선진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현행 정보시스템을 확장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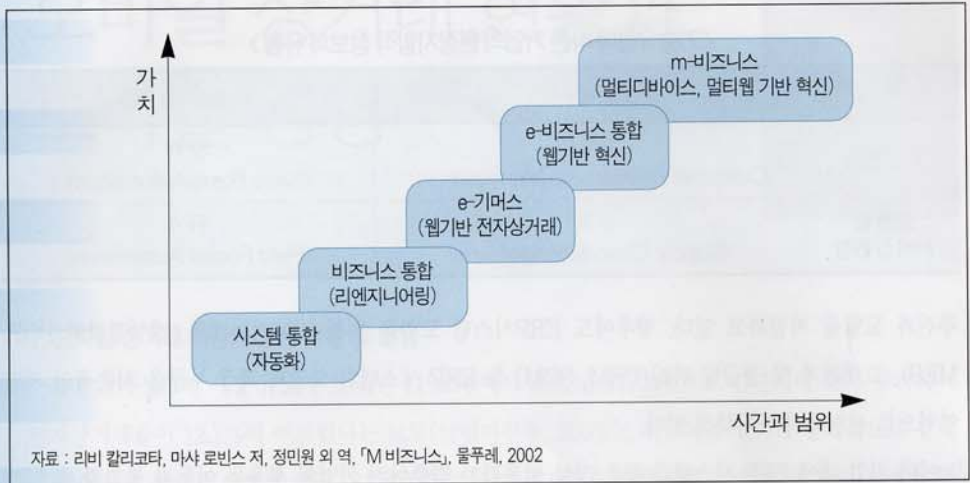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회장은 미래의 환경변화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유선 인터넷 사용자를 앞지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무선통신 전체가입자 가운데 무선데이터 통신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9년에는 7%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분석(LG경제연구원, 2000)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2년 1조원대에서 향후 3~4년 내에 4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e-Bizgroup은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의 성장을 통해 2004년 3.5조원, 2010년 6조원 규모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액센츄어와 IDC 공동 조사에서는 2003년도 10억 달러, 2004년에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많은 전망들은 한결같은 국내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예견(현대경제연구원, 2002)하고 있다.

한편, IDC는 지난해 9,200만 명이던 미국의 모바일 근로자¹⁾가 점차 늘어나 2006년까지는 1억 5천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3년이내에 미국의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모바일 근로자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디지털타임스, 2002년7월3일자 기사 일부인용)한 것 같이 이제는 e-Biz 기업 환경에서 M-Biz 기업 환경으로의 전환을 서둘러 준비해야만 할 시점에 이르렀다.

1) 휴대 장비를 사용하는 영업사원,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모바일오피스 직원, 직장에서 무선 통신장비를 이용해 근무하는 회사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근로자

〈IT 발전과 기업 비즈니스 형태의 변화 추이〉



2. 기업의 모바일화와 모바일 경영

국내 모바일시스템 도입현황조사(KRG, 2002)에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모바일시스템을 도입 완료한 현황은 조사대상 전체 261개중 11%이며 도입중이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경우는 24%로써 금융 및 유통/물류 업종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제조업 등의 기업들이 모바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대기업 및 관련기업들을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창의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래의 표(ATLAS, 2002)와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 및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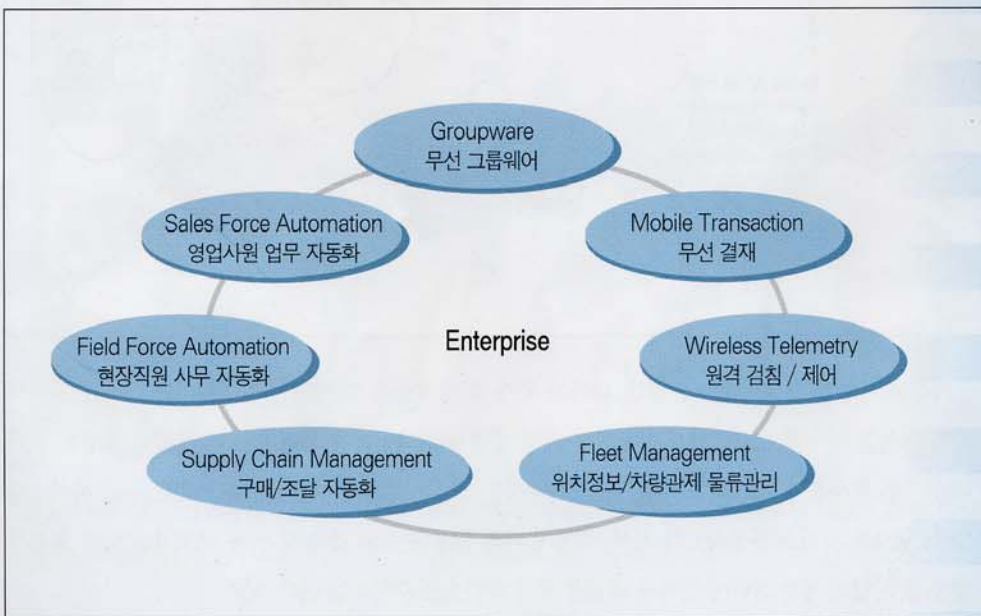
모바일 활용 범위	주요 기능	주요 구축 기업
Mobile Office	고객정보조회, 보험상품정보조회, 청약심사, 대출심사 등 보험영업자동화, 보험사고조사처리자동화	삼성생명, 푸루덴셜, 교보생명, SK생명, LG화재 등
	내부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고객관리, 메일알림	삼성 물산 등
	이동 파출 수납 업무	(구)서울은행 등
FFA	A/S 정보(자재/이력/주문처리) 및 처리결과 입력	삼성전자, LG전자 등
SFA	거래처정보 조회, 현장업무정보 조회 및 입력	기아자동차 등
	현장 데이터 실시간 전송 및 업데이트	농심, 동양제과, 롯데제과, 코카콜라, 경인담배 등
Mobile Tracking	배차 및 화물 조회, 도착예정 및 배송결과 입력	CJ GLS,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차량 위치정보 및 배차관제 시스템	통인 물류, 바이텍 등
Telemetry	원격 검침, 원격 재고 관리	삼성자판 등
	기지국 및 중계기 상태 SMS 이용 원격 검침	KTF, SKT 등
Telematics	긴급 구난, 도로 상황 정보 제공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M-Biz(이하, 모바일 경영)를 무선 인터넷 기술 및 이동통신 장비의 혁신적 발전에 의해 기존의 e-Biz 활동을 동일한 환경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모바일 경영 활동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메타데이터 지원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및 기업의 제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의미하며, 기업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경영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거래비용 절감, 소비자 서비스 및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익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 경영의 구체적 사례(현대경제연구원, 2002)로 자동차 부문을 살펴보면, 모바일 경영은 이미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구조 내 생산·판매에 적용됨은 물론 판매 후 서비스 과정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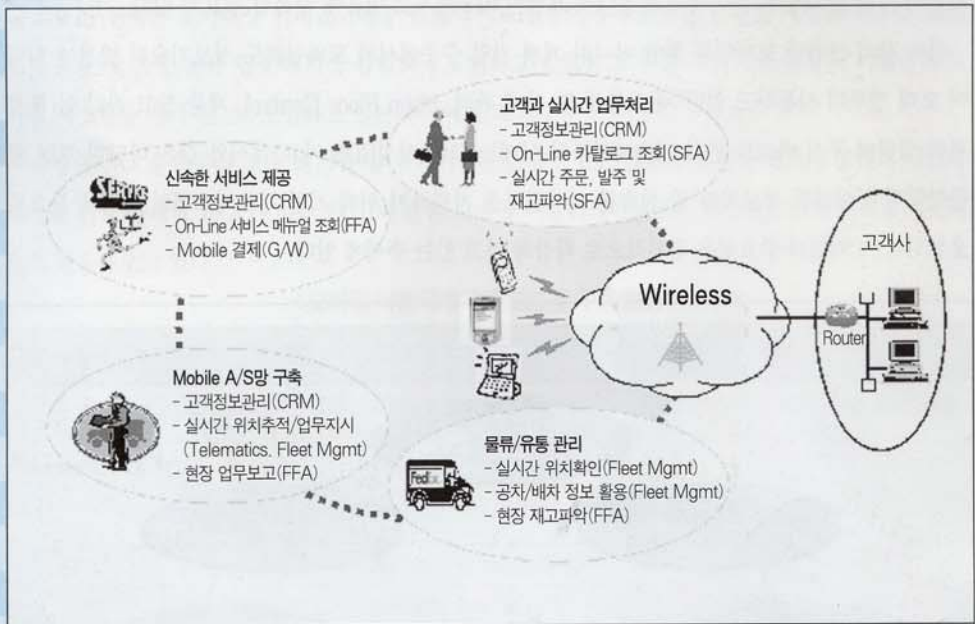
생산·판매 측면의 물류효율화,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판매 후 서비스 측면에서는 대출, 보험, 정비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와 도로 정보, 주유, 여행 등과 같은 운전 및 생활 지원 서비스가 가능함은 물론 텔레매틱스를 통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시장은 2005년까지 8,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벌써 국내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현대·기아·LG텔레콤, 대우·KTF, 르노 삼성·SK텔레콤 등 자동차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간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중고차 매매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매 종합 서비스, 닛산과 NTT 도코모의 인터넷 자동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산업간 모바일화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모바일화도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재고 통제 및 자재 관리, Shop Floor Control, 제품 창고 관리 등 물류 관리 영역의 무선 바코드 인식 기술에서부터 이제는 그림(삼성SDS 자료)에서와 같은 다양한 경영 활동영역에서 실시간 정보처리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정보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 포함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선진 기술과 경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모바일 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전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영위할 수 있는데, 우선 실시간 생산과 영업 및 고객 등에 관련된 정보 교류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정보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에 사용자에게 전달 보 관함으로써 거대하고 복잡한 자료 관리의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 당사자들간 정보 교환의 원활화를 통해 경영 활동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음성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서비스 내용 다양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등이 가능하여, 결국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해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과 고객 만족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모바일 경영 지원 서비스 체계(SKT, 2003)〉



이제는 기업간 경쟁보다는 산업간, 나아가 국가 및 경제블록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모바일 경영은 보다 더 신속한 의사결정, 비즈니스 비용 절감, 기다려주지 않는 고객에 대한 Order Fulfillment 서비스의 향상, 정보와 서비스 유통속도의 개선, 이동에 따른 업무 손실의 감축 및 이동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기업의 생존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SEMINAR

제 156 차 월 레 세 미 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윤덕홍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편집자 주 : 2003년 4월 4일(금)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내스티B홀에서 개최된 본원 「제156차 월레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다.



I. 과거와 현재의 사회

-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체제와 자원 집중화의 당위성이 인정
- 이로 인한 중앙정부 권력의 비대화·소수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화·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
- 현재는 세계화·정보화·지식화·다원화의 사회이며 구시대적인 사고와 질서들이 무너져 가고 새로운 질서들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
-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지역민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이번 참여정부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질서를 정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II. 참여정부의 과제

-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기조는 현장의 소리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놓고 결정된 정책이 국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평가, 피드백해 나가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함 (예 : 참여교육·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 등)
- 참여정치는 분권과 자율의 정치이며 책임의 정치이며 앞으로의 정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전환
- 고비용·저효율의 중앙집중은 한국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지방분권·지방대학육성이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
- 하지만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 특히, 지방분권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


III. 지방정부의 과제

- 과거 정부에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단계
-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지방경제의 활성화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중
- 대학의 교육과 산업현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기업체, 산학협력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내지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지역 기업들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특정 학과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전국적

SEMINAR



으로 조직화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과 함께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을 네트워크하는 제도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

- 대구·경북은 많은 대학과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더불어 지역의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당국들은 지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과 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의 대학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당부 

미국과 미국속의 한국인



황남성 | 영남이공대학 교수

미국에 교환교수로 온 지 꼭 2주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정착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침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는 부시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잉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군수회사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선거자금을 후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정치구도와의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북한의 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나면 바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반전주호를 외쳤다. 하지만 부시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았다. 우리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럽스펠트 국방장관은 TV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이라크인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내가 거주하는 LA에는 낮에도 몇 차례 헬리콥터 여러 대가 공중 순찰을 벌이고 공군기들마저 그들의 영공을 순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

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항에는 차량의 구분 없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새로운 테러에 대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들은 이민 100년사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중 이민 1세대들은 거의 슈퍼마켓, 세탁업, 체소장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미국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타운'이 그것이다. 사실 이것은 한국인만의 형태는 아니고 LA에는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등 각 나라의 교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내가 만난 이른바 '코리아 아메리칸' 들은 한국말을 잘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사실이며 대부분 그들은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교실에 보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익히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대학입학 시험시 제2국어로 한국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한국어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음식점, 한국자동차대리점, 한국마켓 등을 이용한다. 따라서 현지 사회에 적응하기 보다는 새롭게 그들만의 영역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국에 대한 관심은 바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등을 바로 현지에서도 본다는 것이고 이 신문들은

바로 사글세방과 하숙 및 물건의 판매 및 구매광고 등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자신도 내가 사는 곳의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가 계약을 한 경우이다.

대구의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많은 코메리칸들은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대충주의가 부른 인재였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또 다른 문제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박씨로서 기술컨설팅을 위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맡은 분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부분으로서 잘못 작동이 되면 핵 누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파트였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기술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바로 모터의 제어를 담당하는 케이블이 실드선(shielded wire)이 아닌 일반선이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릴(reel)에 감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새롭게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가 그때 들은 말이 충격이었다고 한다. 고급 관료중의 한 사람이 "내가 근무할 동안만 문제가 없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입만 벌리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했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우리 자신에 내재된 대충주의와 설마하는 의식이 바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다.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Korea town



▲테러를 대비하여 LA공항에 주둔 중인 미군

양성평등의 실현과 그 당위성



송화섭 |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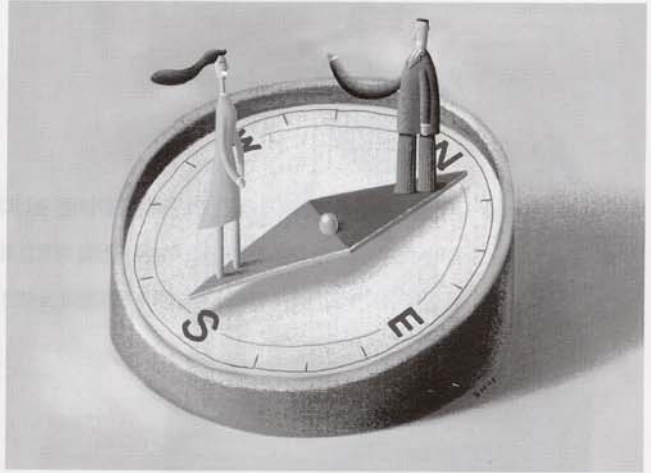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양성평등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논하기 위해 첫째 평등의 개념을 밝히고, 둘째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논하고, 셋째 양성평등과 사회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1. 평등의 개념

평등이 무엇이나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며 절대적인 정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희랍 언어의 평등이란 말 「ison」이나 「isotes」는 정의(正義)라는 희랍말 「dikaiosyne」보다도 더 가깝게 정의(Justice)라는 개념에 연결된 말이다. 그러므로 희랍어에서는 평등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正義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이란 개념 속에는 이미 정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Aristotle은 正義는 바로 평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볼 때 노예 제도, 하류계급에 대한 선거권 박탈, 경제적 특권층의 부당한 이익독점, 여성의 선거권 박탈, 식민주의 인종차별 등에 대한 투쟁은 항상 사회정의가 평등권의 요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ewey는 인간의 평등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람이 본래 날 때 그 자질이나 능력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의 평등관은 심리적인 성격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법률적 또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래적으로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한 억압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Dewey의 평등관은 절대적인 평등주의는 결코 아니다. 그는 "사회적 도덕적 사실에 있어서 평등은 수학적 동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간능력의 자질상의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곳에 단순한 산술적인 평등주의는 때때로 불공평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Dewey가 의미하는 참 평등주의란 강한 자들의 기회를 더 보장해 주고 확장함으로 이룩되는 보다 나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Dewey의 평등은 사회적으로 획득된 정의라는 뜻이 되고 그것



은 바로 도덕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소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Dewey의 평등관은 인간개성의 존중과 인격적인 가치 위에 입각하고 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있어서 서로 달리 태어났다고 하지만 제너럴대로의 의미를 잃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서로 다른 의미가 존중되어야만 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Dewey는 현대 국가들이 복지행정이란 이름 아래 강한 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사실에 부합되는 그의 주장을 평등이란 개념 속에 담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적 제도와 분리된 인간평등이란 희망 없는 추상에 끝날 우려가 많다. 인간평등을 위한 국가 사회제도적 관계는 개인으로 하여금 참된 평등이 실현될 수 있게 개인 그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시켜주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제도란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평등 또는 사회정의 구현의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양성평등의 필요성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달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UN에서 1975년을 '여성의 해' 라고 선포함으로써 전세계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그 후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세미나는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다. 여성의 해를 선포한지 약 30년이 지난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 척도(2002년 기준)는 세계 66개국 중 61위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전문기술직에 있어서의 여성의 비율, 남녀소득차 등을 산출기초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한 결과를 의미한다.

인류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자율적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에게 불평등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이다. 나면서 맹인이 된 자가 정상인과 평등할 수 없고 유전인자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이는 그 유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받아 유리한 고지에서 인생을 출발한다. 우리들의 노력은 어떤 가정적 완전한 평등사회를 향한 불평등의 상대적인 감소에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인 여성자신의 탓과 타율적인 남성우위 사회의 탓에 연유한다. 레드클리프대 학장이었던 마티나 호너(Matina Honer)여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많은 염려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 양자의 갈등이란 즉 한편에서는 자기 전문직 수준에서 뒤질까봐 걱정을 해야 했고, 또 타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여성은 여성의 매력을 잃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를 키워가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는 것에서는 그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여성들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남성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고, 자신이 권력을 소유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선택하고 소유하고 여성들의 생을 인도해 주기를 원했다. 이것은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여성 최대의 행복이라고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들어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 온 것이 오늘에 와서도 여성스스로가 어느 정도 속박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잔재가 아직도 전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많은 남성들의 관념 속에는 아직도 여성은 '三從之道'라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모든 면에서 즉 교육, 직업,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호주제도 문제, 보육문제, 사회적인 편견 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Dewey는 인간의 불평등을 논하기 위해 불리한 사람들에게 평등을 위한 유리한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통한 인간능력의 개발이 곧 인간평등에의 적극적인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Rawls는 현



대 사회는 불리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한 입장에 서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단순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타를 위해 도움을 주는 데 그 의미를 발견한다고 했다.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에게 불평등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이다. 나면서 맹인이 된 자가 정상인과 평등할 수 없고 유전인자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이는 그 유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받아 유리한 고지에서 인생을 출발한다. 우리들의 노력은 어떤 가정적 완전한 평등사회를 향한 불평등의 상대적인 감소에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Vaizey가 "실용적 사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간의 작업과 저축을 위한 자극이 된다"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불평등이 현실적인 사실이라 해도 그 자체가 인간의 이상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또한 반대로 단순한 수학적 평등이 인간이상이 될 수도 없다. 때때로 그것은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불균형이 심한 사회에서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평등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평등을 위해 불평등을 행사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평등의 정의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불평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2007년까지 여성권한척도의 세계 30위 권내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 비율 5.9%에서 12%, 5%의 행정관리직은 10%까지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는 평등의 정의에 입각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국가 경쟁력이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의 실현은 그 당위성이 강조된다.

고용상의 남녀 평등원칙, 선거권 및 공무 담당권 남녀 평등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등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많은 규정을 만들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실현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이다.



3. 평등의식과 사회발전

우리의 법질서를 지켜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양성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상의 남녀 평등원칙, 선거권 및 공무 담당권 남녀 평등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등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많은 규정을 만들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실현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이다. 우리 사회도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현대 정보화사회 구조에는 걸맞지 않다. 이 같은 편견을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경쟁력은 물론 평등사회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간 존엄성을 근간으로 한 인간평등과 이의 실현이야말로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발전에 초석임을 알고 우리 각자가 노력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짐을 인식해야 한다.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으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여 강력한 힘을 기르는 길만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평등에 실현은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내린 편견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 사회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제156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4월 4일(금)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B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56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31차 이토회 개최

지난 5월 10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1차 이토회를 가졌다.



■ 김극년(본원 고문)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4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개 지방은행협의회에 참석, 청소년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결성 및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5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0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 참석



■ 김달웅(본원 고문)

김달웅 본원 고문(경북대학교 총장·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5월 17일 경북대 복현회관에서 '2003 대구세계대학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



■ 노희찬(본원 고문)

노희찬 본원 고문(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4월 22일 우지마노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부 일행의 예방을 받고 대구-이스라엘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전국대학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력단」을 설립, 5월 1일 영남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가짐

• 10, 11일 이틀간 영남대에서 159개 대구경북지역 중·고교 교사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영남대 총장배 중등학교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개최
• 19일 대구중학교에서 과학기술 앰배더스 활동의 일환으로 「과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강



■ 최용호(본원 명예원장)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4월 10일 동산의료원 경영자문위원회

• 11일 부산 기회의 학습에서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특강



회원동정

- 21일 섬유지식산업연구회 현판식 참석
- 25일 대구·경북 이업종(異業種)교류연합회 자문회의 참석
- 30일 한국중소기업학회 대구·경북지역 학술발표회 좌장



■ 홍종흠(본원 부원장)

홍종흠 본원 부원장(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5월 7일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문화예술회관장직에 임명



■ 김규택

김규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4월 21일 코리아나 웨딩에서 열린 이하걸 선수 후원회 발 행사에 참석, 장애인 스포츠 육성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의 중요성을 역설

- 5월 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3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한방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 현안과 21C 문화·복지·레포츠 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
- 11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인라인 마라톤 대회에 참석,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구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활성화 방안을 논의



■ 김수원

김수원 (주)강산 E&C 회장은 5월 13일~7월 16일까지 행자부와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방상수도 공기업(춘천시 등 17개 지방자치 단체)의 상수도 사업운영 및 경영평가 참여

- 5월 20일 대한토목학회 2003년 정기총회에서 「최신 상수도학」의 저술로 제1회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 김은수

김은수 경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육성과제(1차년도분 국비 9억원)를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준비 중

- 지난 5월 초 2003년도 지방경제활성화시책사업 계획서를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산·관 협동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사업 과제를 추진할 예정

- 대구테크노파크 정보화혁신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대구 성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4개사에 대한 2002년도분 정보화종합컨설팅의 모든 평가를 포함하여 5월 30일 최종 완료함



■ 김재근

김재근 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학과장은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에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주최로 개최된 「녹즙의 기능성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춘계산업심포지엄에 참석

- 4월 22일~23일 서울 COEX 태평양관 및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2003년 서울국제식품전, 식품안전국제제삼포지엄 및 식품기계공업 심포지움에 158명의 재학생 및 신입생을 인솔하여 400여 개사의 신제품, 신기술 및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 Business to Business 「식품전문전」을 참관 및 인솔지도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5월 1일 영남대학교에서 상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특강 실시

- 5월 15일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특강 및 방문견학 실시



■ 김형기

김형기 (사)대구사회연구소장은 4월 2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혁신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지역 혁신 아카데미 세미나」 개최



■ 남성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학장은 5월 5일 보건식품계열과 주문식 교육협약업체 오메르과자점과 공동으로 강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빠, 엄마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대회」를 개최



■ 박동수

박동수 영남대학교 상경대학장은 5월 7일 영남대 경영학과 출신인 한용외 삼성전자(주) 디지털어프라이언스네트워크 총괄사



회원동정

장을 초청, 「삼성전자에서 배우기」를 주제로 한 21세기 지식 특강을 개최



■ 윤진

윤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5월 16일 구청 회의실에서 「2003년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공과자」를 표창



■ 이춘근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4월 24일 경북대 우당교육관에서 열린 (사)대구사회연구소·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주최의 「지역혁신 아카데미」(대주제: 혁신과 지역발전)에서 '대구산업구조의 특성과 발전비전' 주제 발표



■ 이해봉

이해봉 국회의원(한나라당·달서울)은 5월 4일 대구 두류운동장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참석, 축사



■ 이훈

이훈 (주)e-SIS 대표이사는 삼성 SDS(주)와 함께 약 7개월간에 걸쳐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삼립산업(주)의 EKP (Enterprise Knowledge Portal: 지식기반협업시스템) 구축 완료(오는 6월 중순

경 있을 ACUBE대구세미나에서 삼립산업(주)의 구축성공사례가 소개될 예정)

• (주)원코, 영신기계(주), 삼정산업과 최적의 중소기업형 ERP솔루션인 uniLITE 계약을 맺고 구축에 들어감



■ 정훈

정훈 (주)우산 대표이사는 사무실 이전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2-9
- 전화 : 053)583-0121~2
- 팩스 : 053)583-0123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5월 6일~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

주연수원에서 개최된 (사)금융자문회사협회 제2차 정기총회 및 윤리강령선포식에 참석

• KLA 주관 사내자격지도사 과정수료(2003. 5. 15~18.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 최무혁

최무혁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2003년 4월 18일~2005년 4월 17일까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최성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5월 17일 대강당과 교내에서 제1회 동양대 실내 무선조종 자동차 경주대회와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를 개최



■ 황대현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4월 1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검토·토의

• 22일 달비골 산림감시초소앞에서 달서구관내 24동 새마을지도자 800여명 숨은 자원모이기 경진대회 참석,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

• 5월 9일 대구 상인동 상인어르신대학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책」을 주제로 강연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구미상공회의소, "2003 龜尾商工名鑑", 2003. 4
- 산업자원부,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산업현장 맞춤형 대학교육체계 개선방향", 2003. 4. 29
- 산업자원부, "2003 테크노포럼21 국제기술협력 포럼-산업기술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2003. 4. 29
-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3. 4. 9
-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기업실적 분석과 시사점", 2003. 4. 16
- 삼성경제연구소, "이라크戰 이후 국내외 경제의 향방", 2003. 4. 30
- 삼성경제연구소,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2003. 5. 7
- 외환은행, "金環林 銀行長 재임기간중 경영실적"
-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에 관한 연구", 2003. 4
- 한국금융연구원, "2003年度 經濟展望 및 향후 課題", 2003. 4
- 한국전력마케팅학회, "2003 한국전력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4

정기간행물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소식지", 격월간 제14호
- 경북테크노파크, "KTP헤드라인", 2003. 3/4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3. 3/4
- 대구경북건설물공업협동조합, "섬유직물소식", 2003. 5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5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 경제동향", 2003. 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03. 3/4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5. 5
-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3.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4", 2003. 4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5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4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나라", 2003. 5
-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타임즈", 2003. 5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4
- 한국고속철도, "고속철도", 2003. 3/4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5
-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3. 5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5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5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5
-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리뷰", 2003. 3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개발연구", 2003. 3/4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3. 5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3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4
-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식문화저널", 2003. 5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3. 5·6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학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금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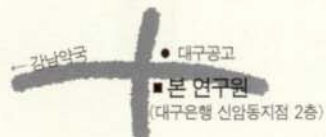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5월호 (통권 145호)

- 간 별 : 월간
- 등록 번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3년 5월 31일
- 발 행 인 : 최만기 (계명대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에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에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 · 편집 : (주)멀티에드메이저 (053-751-5005)



URI 大學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고객행복금융서비스의 지름길!! 우리주택할부금융이 **우리캐피탈**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고객의 든든한 금융파트너 우리캐피탈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우리캐피탈은 간편하고 빠른 대출서비스, 더욱 새롭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고객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입니다.



우리캐피탈 영업안내!

할부금융

- 주택자금 할부금융 / 경락자금 할부금융 / 일반 할부금융

신용대출

- 카드굿바이론(무보증신용대출) : 최고 1,500만원이내
- 학자금 대출(학기당 700만원) : 최고 2,500만원이내
- 전문직 신용대출 : 최고 1억원이내
- 개인택시 우대대출 : 최고 3천만원이내
- 우리일수대출 : 최고 1천만원이내

기 타

- 일반담보 대출 / 할인어음 / 팩토링 금융

장 점

- 대출이 신속하며 예금 거래 실적 등의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 구비서류가 간단하여 이용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 대출신청 즉시 당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영 업 부 053)426-7700 부산지점 051)631-0561
 영업2부 053)425-1982 포항지점 054)272-2111
 서울지점 02)538-6644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361 - 1
 TEL : 053) 426 - 7700 (代)
 www.wooricap.com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설립된 여신전문금융기관입니다.